

##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선교 컨퍼런스 달라스서 개최

미주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4차 글로벌복음통일 전문 선교 컨퍼런스가 오는 8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달라스베다니장로교회(담임 장헛살 목사)에서 열린다.

'MZ 세대를 깨우는 미주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부모 세대와 MZ세대가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컨퍼런스에는 한국과 미주의 다양한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북한 선교와 복음통일의 중요성을 알린다. 강사들은 풍부한 북한 선교 경험과 북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통일에 실질적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로는 북한 역류 경험이 있는 임현수 목사를 비롯해,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정성진 원로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고명진 담임 목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이용희 교수, 흰돌교회 오창희 목사, 신상태 목사(방콕한인연합교회), 윤학렬 감독, 강동완 교수(동아대학교), 김민아 대표(Mkim TV), 이병철 목사(춘천주향교회), 탈북자 연광규 전도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박상원 목사가 올해 8월 달라스에서 개최되는 제4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선교 컨퍼런스를 소개하고 있다. ©기독일보

사가 등이 참여한다.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 신사참배>의 저자 오창희 목사는 신사참배 85주기를 맞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사참배의 문제를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는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영어권 2세대에게는 영어 통역과 번역물이 제공된다.

미주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는 차세대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과 플루티스트 송 솔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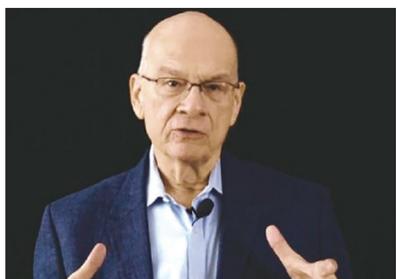
를 초청했다. 두 명의 게스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유년 시절 미국에서 겪었던 경험과 비전도 나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는 "지난해 휴스턴에서 열린 대회에 20대부터 60대까지 영어권 한인 2,3세대들이 참석했는데, 북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며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부모세대와 함께 꿀 수 있었다"며 "올해는 더 많은 차세대 MZ 세대들이 참석해 부모세대와 함께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목사는 이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도 원죄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해 해야 하듯이 남한 교회와 성도들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배교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을 덧입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제4차 글로벌복음통일 전문 선교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참여 신청은 기드온 동족선교회 홈페이지(<https://gideon-brothers.org/>)를 참고하면 된다.

## 팀 켈러 목사, 3년간 췌장암 투병 끝 별세



팀 켈러 목사가 별세한 직후 리더머장로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켈러 목사가 목회자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리더머장로교회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Tim Keller) 목사가 췌장암 4기 판정 후 오랜 투병 끝에 19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팀 켈러 목사가 설립한 뉴욕 리더머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는 성명을 통해 그가 19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음을 알렸다.

아들 마이클 켈러(Michael Keller)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멘토, 친구, 목사이며 학자인 티모시 J. 제이 켈러가 오늘 아침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다.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에 위안을 얻는다. '나에게는 떠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다.' 곧 만나요, 아빠"라고 글을 남겼다.

1950년 펜실베이니아주 엘런타운에서 태어난 켈러 목사는 '버크넬 대학교'(Bucknell University)를 졸업했으며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버지니아주 호프웰 소재 '웨스트 호프웰 장로교회'를 목회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부교수, 미국 장로교(PCA) 산하 단체인 '머시 미니스트리'(Mercy Ministries)에서 이사로 활동했다.

1989년, 켈러는 뉴욕시 맨해튼에서 리더머장로교회를 개척해 매주 예배 출석 인원이 5천 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켈러는 2017년 은퇴 후 뉴욕을 비롯한 45개 도시에 400여 개 교회의 개척 사업을 지원한 사역 단체 '리더머시티투시티' 공동 창립자로 활동했다.

그는 2008년 베스트셀러인 '하나님을 말한다'(The Reason For God)를 비롯해 '자기 망각의 자유'(The Freedom of Self Forgetfulness), '결혼을 말한다'(The Meaning of Marriage), '탕자의 하나님'(The Prodigal God), '예수의 노래들'(The Songs of Jesus), '방탕한 선

지자'(The Prodigal Prophet) 등을 저술했다.

2020년 5월, 켈러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2년간 화학요법을 받았다. 켈러는 지난해 5월, 췌장암 진단을 받은 2주년을 기념하며 트위터에 "화학요법으로 4기 암이 감소됐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셨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마이클은 아버지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소식과 함께 이번 주 초, 켈러가 드린 기도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켈러 목사는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에 감사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예수님을 빨리 뵈고 싶다. 저를 집으로 보내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남겼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현금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본질에 충실한 목회 기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 유기성 목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LA 목회자 세미나

남가주를 방문한 유기성 목사(선한 목자교회 원로)는 지난 22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교회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LA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주복음방송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유기성 목사는 ‘예수동행 운동 1기 사역’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목회와 삶의 행복에 대해 나눴다.

유기성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명’에만 집중하다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리스도와의 하나 됨과 연합의 중요성 강조했다.

유 목사는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 안에 임하시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문제는 이 놀라운 약속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여기지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것”이

라며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시간 훈련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될까?’하고 걱정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했나?’ 자문해 봐야 한다”며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란의 죄를 이기는 능력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가족만 있어도 음란물을 보지 않는 데, 음란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



유기성 목사 초청 LA 목회자 세미나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을 믿는 사람은 은밀한 죄가 그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목사는 “코로나19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이후의 목회 현실은 더 당황스럽다. 예전의 경험이 소용없을 지경이 됐다. 그러나 이런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예수 동행’ 이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의 기초”라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서울신대, 미주성결신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신학대학교와 미주성결신학대학교의 업무협약 사진. ©서울신대

서울신학대학교(황덕형 총장)는 지난 3일 미주성결신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운주 이사장과 황덕형 총장 그리고 김주현 총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학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류, 인턴십, 공동 연구, 학술 대회 및 세미나 개최, 자료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로부터 세계 교회에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웨슬리의 영성을 구축해 나간다.

황하균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와 미주성결신학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됨에 감사하고, 성결교단의 의미있는 협약이 될 것 같다”며 “서울신학대학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주성결신학대학교도 하나님 말씀과 웨슬

리의 영성으로 학생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황덕형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신학대학교와 미주성결신학대학교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서 많은 교류와 협력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하기 위해 헌신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1996년 미주성결교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설립된 미주성결신학대학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는 믿음직한 사명자들을 양성하며, 성경과 사도신경 그리고 웨슬리적 복음주의를 기반으로 진리를 깊이 탐구하며 영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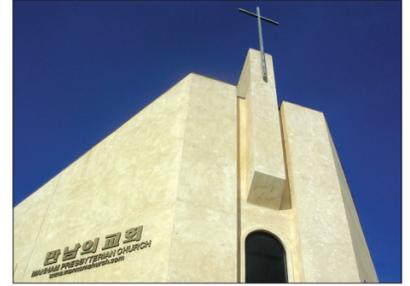
## 남가주 만남의교회 단독선교사 파송 선교사 신청 접수

남가주 노스리지 지역에 있는 만남의교회(담임목사 이정현, 해외한인장로회 LA노회 소속)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아 단독선교사 파송을 계획하고 있다.

교회는 순교신앙, 개척선교 정신, 순결한 삶과 성령충만한 사역을 갈망하며 파송 받기 원하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고 있다. 교회 측은 선교의 사명에 충실하고 전문성과 영성이 잘 준비된 분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류 마감일은 2023년 6월 25일(주일)까지로, 1차 서류 심사 후, 통과 시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 (가족 소개 포함)
3. 신앙고백서
4. 선교에세이(선교계획, 지원



©만남의교회

하는 국가, 재정 상황 등등)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만남의교회 선교팀 앞으로 이메일 통해 lcysoo@gmail.com 접수

신청문의 Tel: 1-818-882-9191 (교회)

## 미주장신, 올 여름 이스라엘 성지순례 프로젝트

###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예수님의 발자취와 초기 기독교 교회 흔적 따라 여행

올 여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이하 미주장신)는 학교 학생과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다. 미주장신의 첫번째 성지순례 프로젝트로 선정된 나라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흔적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숨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발자취,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다.

미주장신 관계자는 “글로벌로 돌아오던 성

경 역사의 현장을 발걸음으로 되짚어 보며, 성도들의 신약성경의 이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초청의 글을 남겼다.

성지순례는 감람산, 시온산, 베들레헴, 사해, 갈릴리, 가나, 나사렛, 갈릴산 등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곳을 방문하는 2,000년전 역사 속으로의 여행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미주장신 고흥필 교수(jpko@pts.edu)에게 이메일을 하거나, 562-926-1023 (ext. 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일시: 6월 8일(텔아비브 국제공항 오전 도착) ~ 6월 17일 출국

비용: \$2,320 + 항공권 + 여행자 보험

# 가정의 달 스페셜

## 가정차량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6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 Lease Special

**2023 KONA Electric SE FWD**

**\$199** 10,000 mile/year  
/MO + TAX \$4,995 due at lease signing  
For 24 Months

**2023 IONIQ 5 Electric SE RWD**

**\$399** 10,000 mile/year  
/MO + TAX \$6,995 due at lease signing  
For 24 Months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센터메디컬 장학금은 '내리사랑' 장학금

품넓은 손주 사랑 가득...  
5월 31일 접수 마감

'손주들이, 장학금 받고 공부 열심히 하렴.' 센터메디컬그룹 장학금은 '사랑의 장학금'이다. 그 안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내리사랑'이 담겨 있다. 언제나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덤석 안아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품 넓은 손주 사랑이다.

센터메디컬그룹이 정성을 다하는 진료로 섬기고 있는 대상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센터메디컬그룹의 중심이고 원동력이다. 센터메디컬그룹이 여러 가지 봉사 행사를 펼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뜨거운 성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2023 센터 IPA 파운데이션 장학생' 선발도 그렇다. 장학금에 아낌없이 보탬을 주었



센터메디컬그룹 장학금 전달식

다. 지난 4월 센터메디컬그룹 오픈 골프 대회에 출전한 시니어들이 참가비 전액을 당신들의 이름으로 흔쾌히 기부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쉽지 않다'는 속담의 현실판이다.

하지만 꿈나무 손주들도 치사랑도 있음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주는 장학금을 주머니돈이나 쌈짓돈이라 여기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것이다. 올해 '센터 IPA 파운데이션 장학생' 선발은

수혜 학생 폭을 크게 늘려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심사를 통과한 학생이면 누구나 장학금(1인당 \$500)을 받는다. 2023년 고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센터 IPA 파운데이션 웹사이트, foundation.centeripa.com에 들어가 아래 링크(http://foundation.centeripa.com/Home/About)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부모님 소득 증명은 필요없다. 접수 마감은 5월 31일 자정(서부 시간)까지. 선발된 학생은 e-mail로 개별 통지를 받는다.

전달식은 6월 15일(목요일) 오전 11시 세라톤 세리토스 호텔(12725 Center Ct Dr S,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뷔페 오찬을 한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고 전달식에 늦지 않아야 한다. 대리 수령은 할 수 없고 지각생도 못받는다. 김민선 기자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전화: 714-980-3532

## 발달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어우러졌던 사랑과 화합 축제



사랑의마당축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8회 사랑의마당 축제'가 5월 20일(토), 오펜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에 위치한 'Buena Park Junior High School'에서 열렸다.

사랑의(마당)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발달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이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고, 장애사역 교회나 단체의 홍보,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며, 경품추첨, 댄스파티 등 신나는 놀이들로 진행되고 있다.

'Thanksgiving'이란 주제로, 감사한인교회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GBC미주복음방송과 Caravan Canopy, Hanmi Bank, 새생명비전교회, OC 한인라이온스클럽의 특별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사랑의마당축제는 총 37개 교회

와 단체들이 협력하여 행사를 알차게 꾸며 주었습니다. 맑고 화창한 초여름의 날씨에 약 660여 명의 장애인들과 가족들, 스텝과 봉사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부 순서로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환영사와 감사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최알렉스 장로의 기도에 이어 구부주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또 '미주교르예술단'이 연주하는 '난타'와 워싱턴화선교단체 'God's Image'의 찬양 공연을 진행했다.

각 부스에 마련된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 진행된 2부 순서에는 신나는 댄스파티와 양희원 집사(감사한인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의 푸짐한 상품 등으로 참석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봉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보이스카웃과 청소년봉사팀 HOPE도 정성스런 봉사로 힘을 보탰다.

## GMI 유스 오케스트라 여름 콘서트 성황리에 마쳐



GMI 유스 오케스트라

GMI 유스 오케스트라(은혜한인교회) 여름 콘서트가 지난 9일 브레아 소재 커티스 극장(Curtis theatre)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승재 교수(플러튼 컬리지 바이올린)가 지휘한 이번 콘서트는 오페라의 유령을 시작으로 All I Ask of You, Dove Sono, Toréador song, O mio babbino caro, 오페바흐의 천국과 지옥 서곡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

됐으며 솔리스트 소프라노 지경, 소프라노 강보경, 바리톤 권상욱 등이 함께 하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GMI 유스 오케스트라 PTA는 연주 후에 Bake sale을 통해 모은 헌금을 통해 플러튼 은혜한인교회 앞에 위치한 소방서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국 전통 음식을 제공에 사용할 예정이다.

## 민족학교 설립 40주년 장학금 수여

민족 학교가 지난 20일(토)

크렌셔 사무실에서 설립 40주년 및 5.18 43주년을 맞아 문화행사, 장학금 수여식 및 설립 멤버들과의 사랑방 간담회 행사를 열었다.

민족학교 장학금은 90년대 '강통할머니'로 불리던 고 이주영 선생이 폐트병과 강통을 주위 장학금으로 기부한 데에서 시작한

이후 서류미비자를 위한 드림장학금, 민족학교 설립자이신 고 정봉 최진환 박사님을 기리는 정봉장학금 등으로 이어져 왔다.

민족학교의 설립정신인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군세계 살자", "더불어 살자"를 주제로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들 중 정봉 뿌리장학금: 박채원, 홍익장학금: 안도남, 드림장학금: 함예술, 두레장학금: 이윤서 학생 등 총 4명이 수상했다.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정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제5회 • 청소년 연합수련회**  
5th Joint Youth Retreat

# Called to Be Free

자유의 부르심

**2023년 6월 19일(월)~21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 강사** 김성민 목사  
Cambridge University 물리학 학사  
King's College London 물리학 석사  
London School of Theology 신학 석사  
런던 순복음교회 부목사(중고등부 담당)
- 대상** 한인 청소년 선착순 100명(2023년 8월 기준 6학년~12학년)  
\*자제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열지 않는 교회의 학생에 한함
- 등록기간** 5월 26일(금)까지
- 등록비** 무료

You, my broth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sinful nature;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Gal 5:13)

**등록 문의**

[www.lafgc.com](http://www.lafgc.com)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 951.928.4415  
✉ lafgced@gmail.com

**등록하기**

**SCAN ME!**

# “故 조용기 목사님 신앙 이어가기 위해 최선 다했던 15년”

### 하디 원산대부흥 120주년 되는 해 반성과 함께 제2의 부흥 일으켜야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창립 65주년 기자간담회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기하성 대표총회장), 고영용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개척담당 부목사 겸 기획조정실장), 김민철 홍보국장(여의도순복음교회)이 참석했다.

먼저 인사말을 전한 이영훈牧사는 “올해는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1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번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해 ‘하디 원산 부흥회 120주년 및 오순절 성령강림대기도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웨슬리안 6개 교단(감리교·기하성·예성·기성·나사렛·구세군) 400만 성도 연합으로 회개와 축복, 성령충만, 감사 등을 주제로 한 ‘심령부흥대성회’로서 오순절 성령강림대기도회를 기획을 했고, 하디 선교사의 원산 부흥



교회 설립 6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교회개혁위원장 고영용 목사, 이영훈 목사, 홍보국장 김민철 목사. ©송경호 기자

의 역사를 다시 한 번 한국에서 재연하고자 여의도순복음교회 65주년 행사와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2008년故 조용기 목사님의 뒤를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름을 받아 달려온 지 15년이 되었다”며 “15년의 기간 동안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신故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잘 계승하고, 그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

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은 ‘오직 성령 충만’과 ‘절대 긍정의 믿음’이었다”며 “그러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을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와 같이 지속적으로 부흥하여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사역에 집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장로교가 부흥한 나라이다. 장로교가 부흥하게

된 것은 바로 ‘제자훈련’이다. 장로교 신앙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양성했다면,故 조용기 목사님은 여기에 ‘성령체험’이라는 역동적인 신앙을 통해 한국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긍정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체계화한 15년이였다면 이제 사회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이 바로 ‘나눔의 신앙’이라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그에 비해 나눔·섬김·구제는 미진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 등의 이원화·편 가르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사랑 실천’과 ‘섬김’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매년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해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1세기는 오순절 역사를 가진 교회가 세계교회를 주도해 갈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흐름 중 오순절 운동이 가장 큰 서클”이라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는 향후 10년 동안 1만 5천 개의 새로운 교회와 300만 성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 목회자 2명 중 1명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정식 교인 아냐”

온라인 예배만 드릴 경우 그를 ‘정식 교인’으로 볼 수 있을까? 목회자 2명 1명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본 연구소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이 얼마 전 전국 개신교 담임 및 부목사 650명을 대상으로 ‘정식 교인의 조건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16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목회자들에게 시무 교회 정식 교인의 조건을 현장 예배자와 온라인 예배자를 기준으로 묻은 결과, ‘현장 예배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가 53%, ‘온라인 예배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가 47%였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목회자들에게서 ‘현장 예배 참석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비율(57%)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 비율은 50~59세에서 48%, 60세 이상에선 52%였다.

49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선 ‘현장 예배’를 꼽은 비율이 ‘온라인 예배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율보다 높았지만, 50~59세에선 후자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또 정식 교인의 조건을 예배 참석 빈도를 기준으로 묻은 결과, ‘최소 한 달에 3번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주 주일예배 참석’ 20%,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17%, ‘최소 한 달에 2번 이상’ 15% 등의 순이었다.

김진영 기자

## 미주성결교회 작은교회 목회수기 시상식

###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 수상

“모든 글들이 은혜롭고 감동적”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본교회와 함께하는 제5회 작은교회 목회수기(미주편) 공모전 시상식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 대예배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성결신문은 매년 작은교회 목회수기를 접수해 작은교회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주성결교회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했고, 미주성결교회 총회 기간 시상식을 열게 됐다.

우수상에는 한천영 목사(갈릴리션교회)의 ‘주면 받는다’, 김종민 목사(애틀랜타교회)의 ‘반딧불이 교회’, 차학주 목사(풍성한교회)의 ‘80시간의 기다림’이 각각 수상해 2,500달러씩 상금을 받게 됐다.

장려상에는 이경태 목사(밴쿠버에돔교회)의 ‘가정교회에서 원주민 선교까지’, 표희곤 목사(은혜샘교회)의 ‘방향 전환 Turnaround’, 조다니엘 목사(로고스라이프교회)의 ‘감옥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광재 목사(휴스턴형제사랑교회)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가 각각 수상해 상금 1천 달러씩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장 김용태 장로(서울제일교회) 사회



수상자들 기념촬영 모습. ©이대웅 기자

로 후원회장 하봉호 장로(개봉교회)의 지도, 심사위원장 성장용 목사(총무성결교회)의 심사평, 시상이 진행됐다.

심사평에서 성장용 목사는 “열두 분의 심사위원들이 다 읽어보고 심사했다. 이 민교회의 애환과 어려움에 공감이었다. 어떤 대상을 주기보다 한 분이라도 더 상을 주면서 위로하고자 했다”며 “어려움을 헤쳐나간 과정들을 기록한 분들을 중심으로 우수상과 장려상을 정했다. 모든 글들이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다. 모두 상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소감을 전한 김종민 목사는 “어쩌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라

며 “이번 시상식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을 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치고 흔들릴 때 잘 가고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년째 상금을 전액 후원하고 있는 본교회 조영진 목사는 격려사에서 “저도 뉴욕과 뉴저지에서 22년 간 이민목회를 했던 동지이자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을 많이 준 사람이다. 이번 시상식을 위해 성결신문과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50주년을 맞은 미주성결교회는 인재들의 산실이다.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미주성결교회 목회 수기가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NC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 펜실베이니아 141개 교회, 동성애 문제로 UMC 탈퇴

### 서스퀘하나 연회 탈퇴 승인...교회 수 665개로 감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141개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의 분열로 인해 교단을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7일 윌리엄스포트 소재 커뮤니티 아트센터에서 열린 UMC 서스퀘하나 연회(Susquehanna Conference) 연례 회의에서 141개 회원 교회의 탈퇴가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서스퀘하나 연회에 속한 교회 수는 665개로 급감했다.

연례 회의에서 투표는 알투나부터 요크 지구에 이르기까지 지역구별로 진행되었고, 투표 중간마다 기도와 묵념 시간이 주어졌다.

‘연회를 위한 연대사역’(Connectional Ministries for the Conference) 책임자인 캐슬린 카인드 목사는 탈퇴로 인해 교회가 사라진 신자들에게 관한 질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원화된 해결책은 없으며, 함께 나아가며 개인과 가족 및 그룹의 구체적인 필요를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를 마친 뒤, 서스퀘하나 연회 감독인 산드라 스타이너 볼 주교는 연설에서 “오늘 밤, 이 문을 나설 때와 들어올 때의 우리는 참으로 다르다. 지금은 깨어짐의 시간”이라고 명명했다.

볼 주교는 “탈퇴를 결정한 교회의 일원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 시기 동안 길을 보수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며 “이것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탈퇴 토론 과정 중에 우리는 많은 다른 점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입어, 길을 보수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퍼슨 타운십에 위치한 ‘코르테즈 커뮤니티교회’(Cortez Community Church) Cortez United Methodist Church)는 이번



2023년 5월 17일 펜실베이니아 주 윌리엄스포트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서스퀘하나 연회 연례 회의. ©서스퀘하나 연회 페이스북

탈퇴 교회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4월, 서스퀘하나 연회는 코르테즈 커뮤니티교회가 적법한 탈퇴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문에 따르면 교회 지도부는 지난 2월, 교회 재산을 장악하고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새로운 단체명이 들어간 교회 간판으로 바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UM 뉴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3200개 이상의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떠났고, 그중 올해에만 1200개 이상이 UMC를 떠나 새로운 보수 감리교단인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에 가입했다. 김유진 기자

## 그렉 로리 목사 “부정적인 시대, 격려의 2가지 기둥”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교회 담임인 그렉 로리 목사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부정적인 시대에 2가지 격려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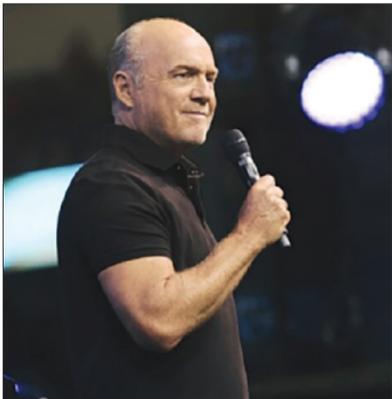
그는 “우리는 오늘날 의기소침한 말의 문화에 살고 있으며, 아마도 여러분은 최근 그중 일부를 흡수했을 것”이라며 “SNS에서 우스꽝스럽고 비열한 독설과 댓글을 만날 수 있다. 뉴스는 더욱 낙담시킨다. 때때로 우리는 소름과 고모라를 따르기 위한 민족적 경쟁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물론 그 모든 부정적인 양상은 미국, 특히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의 절반이 소외감을 느끼고 절반 이상은 아무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청년들만이 아니다. 많은 노인들이 희망의 말과 자신의 삶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을 이유를 찾고 있다”라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참된 격려는 물론 하나님에게서 온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쓴 것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17절(“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렉 로리 목사. ©하비스트교회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을 언급했다.

그는 “사랑, 교제, 하나님의 성령의 권고에 더하여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시대에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격려의 기둥을 주셨다”라고 했다.

### 1. 말씀의 격려

그렉 로리 목사는 “나는 정말 실패자야. 나는 항상 실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어두운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을 갖고 계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 구절의 두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이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도 없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쩌면 당신은 실패했고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실 것이다! 당신이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잘못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시다!’ 그렇다, 이런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신명기 31장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라고 했다.

그는 “당신은 ‘나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 5절(‘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에 쓴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다.

그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라인이나 SNS, 신문이나 케이블 TV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년 동안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어 좋은 길로 인도해 왔다”라고 했다.

### 2. 격려자의 힘

그렉 로리 목사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라는 격려자가 적절한 시기에 바울이 된 사울의 삶에 끼어들었다. 바울은 신도들을 박해한 무서운 기록을 가진 새 신자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믿었고 그를 그의 날개 아래로 인도했으며 주 안에서 그를 격려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바울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강력한 영적 은사를 발견했다. 얼마 후 바나바는 새 친구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적절한 순간에 그의 삶에 개입한 이 격려자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물으며 “바울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격려자가 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격려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함께 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그림을 보기 전에는 그런 격려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 새들백교회 “여목사 안수로 제명 부당” 남침례회에 항소

### 다음달 SBC 연차총회서 제명 재논의

여성 목회자 안수로 미국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에서 제명 당한 새들백교회를 비롯한 3개 교회가 교단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SBC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남침례회 협약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에 있지 않아 제명된 3개 교회인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 소재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 켄터키주 루이빌의 ‘펀크릭침례교회’(Fern Creek Baptist Church),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의 ‘프리덤교회’(Freedom Church)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SBC 자격심사위원회는 새들백교회와 펀크릭침례교회가 “여성 목사직에 대한 그들의 입장 때문에 협약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면서 프리덤교회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데 교회가 협조하지 않아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제명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새들백교회는 2021년 5월 6일 처음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했다. ©새들백교회

남침례회는 2022년 6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연차총회 이후 8개 교회(작년 9월 2곳, 올해 2월 6곳)를 제명했으며, 그중 5개 교회에 대해 여성 목사직 허용을 문제 삼았다.

데이비드 선즈 SBC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SBC 규정은 협력 관계가 아닌 교회들이 투표하기 전, 그들의 사건을 항소할 수 있

는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SBC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에 제출되기에, 뉴올리언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한 준비와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격심사위는 다음달 13일과 14일 양일간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SBC 연차 총회에서 항소 건을 다룰 예정이다.

새들백교회는 2021년 5월 리즈 퍼피, 신시아 페티, 케이티 에드워즈 등 세 명의 여성을 목사로 안수하면서 교단과 마찰을 빚었다. 또 교회는 2022년 톱 워렌 목사의 후임인 앤디 우드 담임목사의 부인 스테이시 우드를 교육목사로 임명한 데 이어,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허용해 논란이 가열됐다. 지난 주에는 여성 목사 중 한 명인 케이티 에드워즈가 새들백교회 레이크 포레스트 캠퍼스의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자격심사위는 2022년 연차 총회에서 새들백교회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는 대신, 담임목사와 구별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간사직에 “목사”라는 칭호를 정정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들백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지난 2월, 집행위는 여성 목사직을 허용한 새들백교회, 펀크릭침례교회를 비롯한 조지아주 그리핀의 ‘뉴페이스미션미니스트리’(New Faith Mission Ministry)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세인트티모시 크리스천 침례교회’(St. Timothy’s Christian Baptist Church), 미시시피주 잭슨의 ‘갈보리침례교회’(Calvary Baptist Church)에 대한 교류 단절을 결의했다. 김유진 기자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배는 일변의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2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이른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참가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균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오후 1:1, 3: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쿠키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정식)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문(요정식)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뎀위임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sc@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요한 담임목사**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주세대에)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 오전 11:30 (토-일) - 원정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den 고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아모리(AMOR)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영광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통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영**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jwcm.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kumc.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텍사스 교회서 동성애 공연 벌어져 충격... 아이들도 관람



서면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드래그쇼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의 한 지역교회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래그쇼(보통 남성 동성애자가 여성의 의상을 입고 하는 공연)를 진행했다. 해당 쇼에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 드래그 퍼포머, 털의상을 입은 성인 등이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했다.

친동성애에 단체인 '그레이슨 카운티 프라이드'(Grayson County Pride)가 주최하는 '프라이드 프롬'(Pride Prom) 행사는 당초 5월 13일 델러스에서 북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서먼(Sherman)의 피칸 그로브 파크 웨스트(Pecan Grove Park West)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전 장소가 서면제일연합감리교회(FUM Sherman) 모자이크 캠퍼스 주소인 W 피칸 스트리트 118(118 W Pecan Street)로 변경됐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보수인권단체인 프로텍트 텍사스 키즈(Protect Texas Kids)에 의해 처음 알려졌며, 이 단체 회원들은 거리 밖에서 시위에 나선 사람들 중 일부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수의 시위자들이 표지판을 들었고, 그 중 한 명은 성조기를 흔들기도 했다. 관련 영상에는 아이들도 쇼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시위 단체이자 가톨릭 단체인 뉴컬럼비아무브먼트(The New Columbia Movement)는 행사장에서 "순결을 지키고 변태를 거부하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현지인들과 함께 목주기도를 했다.

오후에는 무지개 깃발을 든 동성애자 스파이더맨을 포함한 시위자들이 교회

밖에 나타났다. '나를 밟지 말라'는 자유주의 모토가 적힌 무지개 깃발을 든 이들도 있었다.

저녁 늦게 서면 경찰이 드래그 퍼포머와 털옷을 입은 사람들을 호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서면 경찰 대변인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행사 주최측이 보안을 위해 두 명의 경찰관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CP는 17일 서면제일연합감리교회와 베니스 페캄(Denise Peckham) 목사에 게 논평을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서면제일연합감리교회 공식 웹사이트는 교회가 LGBT를 포함해 중독과 싸우며 다른 형태의 도전을 하는 이들의 모임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 측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고 UMC 교회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불완전한 자녀들"이라고 소개한다.

작년 '그레이슨카운티프라이드'는 피칸 그로브 공원에서 유사한 모든 연례드래그 행사를 조직했으며, 무알코올 바를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이처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드래그 공연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돼 주 하원 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상원법안12'(SB12)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모든 이들은 '성적 지향' 행사에 참여 금지되며,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사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달러(1,33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혜진 기자

## 美 텍사스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제정 눈앞

미국 텍사스주의회가 어린이를 위한 성전환 수술 및 신체 변형 약물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 도나 캠퐸(Donna Campbell)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14(SB14)는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 등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를 금지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SB14는 4월 초 텍사스 상원을 통과했고, 약 한 달간 토론 끝에 지난 12일(이하 현지 시각) 하원에서 초기 승인을 받았다. 일부 수정을 거친 수정안은 상원으로 다시 보내졌고, 여전히 하원의 최종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은 주의 의료이사회가 어린이에게 이 같은 약물이나 수술을 제공하는 모든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러한 절차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B14 및 관련 법안 HB1686의 통과를 옹호했던 공화당 올리버슨(Tom Oliver-son) 하원의원은 "성별불쾌감은 정신 건강 장애이지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별불쾌감을 가졌거나 성전환을 한 자녀, 이러한 문제로 자살한 자녀로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연구에 따르면 성별위화감을 느끼는 아동의 80%가 지원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으면 성인 초기에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여진다"며 "사실 과학 문헌은 이러한 이분법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실험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많은 이들의 무책임한 메시지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 했다.

거의 6시간 동안 지속된 토론에서 민



©pixabay

주당 의원들은 SB14의 법적 용어를 수술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동시에 의사와 기타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가 사춘기 차단제 또는 교차성 호르몬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숀 티에리(Shawn Thierry) 하원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민주당원은 SB14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찰리 제렌(Charlie Geren)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제렌 의원과 두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자신의 투표가 실수 또는 오작동의 결과라고 했다.

티에리 의원은 공개 서한을 통해 자신이 금지에 투표한 이유에 대해 "성 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8세, 9세, 10세의 어린이들에게 GnRH 아날로그(사춘기 차단제)와 교차성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의 장기적 효과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한 태도"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인도 성도, 대규모 폭력 사태 후 여전히 불안한 상태”

### 최소 73명 사망·400개 교회 불타 피해자 대부분 기독교인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Manipur)에서 최근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해 최소 73명이 사망했으며 약 400개의 교회가 불타거나 파괴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지났으나, 현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마니푸르 정부의 보안 전문가 쿨딕 싱(Kuldeep Singh)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투 중에 약탈된 488개의 무기와 약 6,800발의 탄약이 회수됐다”고 전했다.

인도 북동부 준군사조직인 ‘아삼 라이플’은 추가로 22파운드(10kg)의 폭발물과 2,000개의 BIPL 기폭 장치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3일 임팔 계곡에서 시작된 폭력 사태는 추라찬드푸르와 임팔 계곡을 중심으로 전역에 확산돼 약 4일간의 혼란을 야기했다.

추라찬드푸르(Churachandpur) 지역의 언덕에 거주하는, 쿠키-조 공동체에 속한 대규모 기독교인들은 공격의 배후에 힌두교 메이테이 공동체의 ‘검은 셔츠’로 알려진 아람바이 텡골(Arambai Tengoll)과 메이테이 리푼(Meitei Leepun)이 있다고 말한다. 메이테이 기독교 공동체는 주로 임팔 계곡에 정착해 왔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앞서 마니푸르 경찰 훈련 대학, 2개의 지역 경찰서, 임팔에 있는 IRB 대대 캠프에서 1,000개가 넘는 무기와 10,000발의 탄약이 메이테이 힌두교인들에 의해 도난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익명의 소식통은 추라찬드푸르의 경찰서도 쿠키 공동체의 공격과 약

탈을 당했다고 전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의하면, 이 기간 폭력이 고조되면서 최소 7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중 약 64명은 기독교 부족이었다. 또 200명이 부상을 입었다. 1,700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입거나 완전히 파괴되거나 화재 피해를 당했다. 이 혼란으로 인해 약 50,000명이 집을 떠나야 했으며, 그 중 약 35,000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 부족이 다수인 추라찬드푸르 메이테이 공동체의 집도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현지 소식통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폭력과 그에 따른 긴장으로 메이테이 기독교인 주민들이 임팔 계곡을 완전히 떠났다. 정부 및 경찰 관리를 포함해 과거 이곳에 거주하거나 근무했던 모든 메이테이 주민은 해당 지역을 떠났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 지역의 기독교 단체들은 폭력의 확산 속에 397개의 교회와 6개의 기독교 기관이 불타거나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한다. 이 교회들은 주로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로 사용됐으며, 이러한 구조물은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됐다고.

마니푸르 전체를 관할하는 임팔의 도미니 루몬(Dominic Lumon) 대주교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섰다.

그는 “전 지역에 걸쳐 절망감이 만연해 있다”면서 “소속과 관계 없이 모든 공동체가 계속되는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인도 북동부 지역은 오랫동안 민족 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마니푸르에서 메이테이 힌두 공동체와 부족 공동체는 토지 소유권 및 차별 철폐 정책과 같은 이슈를 두고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강혜진 기자

# 에리트레아, 예배 녹화한 기독교인 청년 103명 체포

### 장기 징역형 우려돼... ‘아프리카의 북한’



에리트레아 당국은 지난달 SNS에 올릴 찬양과 예배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수도 아스마라의 한 장소에 모였던 기독교인 청년 103명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에리트레아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기독교인 핍박 사례다.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에 따르면, 이번 체포로 핍박 감시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북동 아프리카의 그 작은 나라에 구류된 기독교인이 500명을 넘어섰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eley)대표는 “이 성도들이 현재 에리트레아의 악명 높은 마이 세르와 교도소에 구금됐다.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 단체들은 이 교도소가 수감자를 학대하며 고문하고, 처벌의 한 형태로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고, 정식 기소나 재판도 없이 기독교인을 수 년씩 감금한다고 계속 거론해 왔다”고 전했다.

순교자의소리가 공개한 논평에서 버하니 박사는 “저는 에리트레아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탄할 것을 모든 에리트레아 국민과 그 친구들에게 촉구한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하는 일, 즉 단지 음악을 연주하고 그것을 SNS에 올리기 위해 녹화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그 청년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에리트레아에서 그것이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됐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에리트레아 성도들이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인보다 ‘더 길고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02년 5월 이후, 에리트레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국가가 됐다. 에리트레아는 종종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린다. 에리트레아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를 송배하는 북한 체제를 좋아하고 그것을 자국에서 실행하고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의 박해도 불구하고, 에리트레아의 청년 기독교인들조차 기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세상 나라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퇴하고 있다. 이 103명의 젊은 성도들은 찬양과 예배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모였고, 심지어 자신들의 정체를 SNS에 거꺼이 노출하려고 했다. 이는 그 청년들이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고,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 청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도 그 청년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리는 에리트레아 성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핍박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특권을 수 년간 누려왔다. 에리트레아 성도들은 보통 악기도 없이 항상 기억에 의존해서 찬양하지만, 그 찬양은 천국의 노래처럼 들린다. 그 성도들의 성경 암송 능력은 경이롭다. 그들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기를 좋아한다. 그 성도들은 2002년 이후, 에리트레아 정부가 어떤 시련을 안겨 주든지 가까이 감내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모이는 것을 귀하고 귀한 특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벨리제물 OC제물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0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회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9찬양대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주의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생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구원하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g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고난에 꺾이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는  
늘 푸르른 그대여, 오라!

# 2023 센터메디컬그룹 장학생선발

백만 불  
장학금 대장정  
**6** 번째  
이정표

### 골프 대회 장학금 기부자 명단

기부자 한 분, 한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Pak Su Yong
- Kim Helen
- Suh Joann
- Wille Kim
- Mark Kim
- Gimi Yoon
- Ku han Yoon
- Woowon Ok
- Calvin Kim
- Richard Lee
- James Jung
- Jiny Kim
- Julie Lee
- Hyun A moh
- Mi Ye Yim
- Hee Ja Park
- Kelly Ko
- Yong Shin

- Jung Kyo Yoo
- My Guen Ham
- Chan Paek
- Joo Haeng Lee
- Frank Jin
- David Kang
- Steve Hong
- Sangwook Park
- Jinyong Son
- Jungnam Park
- Kangil Kim

- John Jhun
- Susan Jhun
- James Jo
- Joo Won Jo
- Vivian Kim
- Grace Park
- Daniel Park
- John Kim
- Paul Chun
- Joey Kim
- Joseph Ko
- Sunny Lee
- Jun Lee
- David Paek
- Andrew Lee
- Alice Lee
- Soo Hwa Lee
- Sophia Kim
- Philip Kim
- Chang O Park
- Steve Back
- Austin Park
- Max Jong
- Phil Chon
- Jimmy Jung
- Kwang Shim
- Sangeun Shim
- Yong Woon Kim

- 박수영 내과
- 김민성 내과
- 강신욱 내과
- 박항 내과
- 동부 병원
- 단손 메디컬
- MBN

- Duk Hee Jang
- Jang Mi Baek
- Sun Jin Kim
- Jenny Jeon
- Minnie Ryu
- Mrs. Ham
- Young Il Lee
- Sang Jin Lee
- Jongsik Kim
- Kelly Yi
- Sim Hong Sub
- Yi Chong Ki
- Young Yee
- Jong Chul Park
- Young In Kim
- Kwang Ho Yoon
- Sung ik Lee
- Jin soak Chung
- Jung In Choe
- Young Chul Joh
- MoonHo Lee
- Eun Sik An
- Kwang Park
- Woo Hee Tack
- Sungwon Lee
- Kee Hyoun Lee
- JoungNe Jang
- Grace Min
- Jack Lee
- Yoon No
- Moo Sub Sim
- Kwi Soo Kim
- Robert Choi
- Gunn Chung
- Sandy Chung
- Laura Kim
- cho ng Chong
- Hayward Chae
- Kris Yoon
- Sok C An
- Eric Jun
- Kim Yong Chul
- Choong Y Cho
- Seong Hyeon Kim
- Myung Han Kim
- Justin Chon
- EunYoung Chon
- Byong Kwon Chon
- Ae Yim Chon
- Hyung Chul Kim
- Samuel Woo Kim
- Young Hee Moon
- Jeong Seok Chae



선발 인원\_ 000명

선발 대상\_ 2023 고교 졸업 대학 신입생

지원 방법\_ Center IPA Foundation 웹사이트

(<http://foundation.centeripa.com/Home/About>) 온라인 접수

접수 기간\_ 2023년 5월 31일 자정까지 (서부 시간)

#### 참고 사항

\* 선발된 장학생들은 E-mail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 장학금 전달식 : 6월 15일 오전 11시

쉐라톤 세리토스 호텔  
(12725 Center Ct Dr S, Cerritos, CA 90703)

전달식 후 뷔페 오찬

#### 장학생 준수 사항

반드시 본인 참석 및 지각 금지  
대리 참석 및 지각 시 수령 불가

#### 문의처

foundation@comso.org  
Tel: 714-800-3168



진유철 칼럼

Not I But Christ의 간증을 듣고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1차 예과도르 단기 선교팀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단기선교와 같은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일하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 선교

팀 27분은 한결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Not I But Christ'의 믿음을 증명하므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오랜 역사동안 함께 했던 유교나 불교 사상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자기를 전개하는 자아'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깨내려는 '득도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교도 '내'가 삼강오륜을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능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고 전개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 임금의 왕자로서 최고의 지위와 힘과 지식과 배경을 가진 자로 나이 40세, 지도자가 되어야 할 나이가 되자 민족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자와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어지고 난 후 80세가 되어서야 '자기를 전개하는 자아'가 아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아'를 갖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만 가고, 지팡이를 들라면 들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되었고, 그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후부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믿음을 가지니까 연약한 몸으로도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 몸을 보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떨어지다'라는 뜻인 그리스어 '아포토시스(Apoptosis)' 시스템에 의해 세포의 죽음이 일어나야 매일 수백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겨 건강한 몸이 유지 될 수 있

습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때, 코딱지, 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위해 스스로 죽은 세포의 시체들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난 안 죽을 거야!' 하면 이것이 바로 몸 안에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난 안 죽을 거야! 내 것이야! 내가 했어!' 라는 태도를 가지면 주인 되신 예수님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은혜의 경험이 대단하고 열심히 했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암세포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단기선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연합수련회와 모든 신앙생활에서 'Not I But Christ'의 믿음을 지켜서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성철 법률 칼럼

공립학교와 신앙 생활



주 성 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어부

공립학교의 성교육과 함께 부모의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신앙 생활이다. 요즘에 학교에 갈 때 성경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교정 안에서 전도하거나, 성경공부 또는 기도 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각 학교 행정관들은 정교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운운하면서 이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사실 현실 정을 보면 공립학교 행정관과 교장 그리고 교사는 자신의 짧은 법지식으로 이러한 정책을 제정해 놓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첫 번째로 공립학교에 성경을 지참할 수 있을까? 또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미국 정부는 정치와 종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자유시간, 즉 휴식시간, 점심시간 심지어는 자습시간에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포함해서 성경의 영웅을 중심으로 영작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는 그 내용을 종교적 이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구사와 문장이 만들어지는 구조 등등 영문학에 기초하여 점수를 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영웅에 대하여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 등을 선정하여 작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불공평하게 처리되는 것은 무슬림 학생이 모하메트를 중심으로 작문을 지어도 학교에서는 별로 큰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미시건 주에서는 수학 응용 문제에 있어서 그 지명과 내용을 무슬림 나라 지명과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제시해도 아무런 제재없이 허용되고 있다. 도서관의 서적도 마찬가지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에대한 서적은 버젓이 비치해 두어도, 성경이나 크리스천 도서는 비치해 놓지 않고 이것에 불평을 하면 정교분리를 외치면서 배타적이다. 남가주 (Southern California) 터메콜라라는 도시가 있다. 한 때 이곳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모든 종교 서적을 다 거둬 드린일이 있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서적을 비롯해서 흑인 종교인의 서적까지 건드렸다가 학교 당국이 호되게 얻어 맞은 적이 있다.

두 번째로, 교내에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다. 물론이다. 학교에서 기도회로 모이거나 성경공부로 모이거나 특별행사를 할 수 있다. 이유는 학교에서 기타 여러 클럽 운동을 허락한다면, 크리스천 모임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심지어 교내에서 전도 활동도 허락해야 하는 것이다. 단 외부에서 초청된 사람에게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은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본 협회는 지난 25년을 지내오면서 거의 4,000여 법원 케이스를 다루어 왔지만, 이중에 상당수가 이런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줬다. 한 4-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북가주 (Northern California)에 어느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수 차례 정학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퇴학까지 통보 받았다. 그런데 12학년 졸업반에 있었던 학생은 복음을 너무 사랑하던 나머지 자신이 만든 전도지와 미국의 헌법을 자신이 미리 준비해서 그것도 방과 후 교문 밖에서 전도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이것이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방영된 것을 본 협회 변호사가 보고 이 학생을 돕기로 작정하고 변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만 지켜온 법원 공방이었지만, 결국 판사는 종교자유와 학생의 권익을 존중해서 학생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 그

래서 학교 통합교육국은 모든 변호 비용을 물론이고, 학생에게 학자금까지 주도록 명령을 받았으면 그 고등학교 교장은 이 학생이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서까지 써 준 일이 있다.

이 일을 두고 볼 때 우리 주립학교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자란 아이가 제 아무리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산다하더라도 타협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고 감사한 것이다. 어떤 학생은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로 연설문을 읽었는데, 요즘 학교에선 학생의 돌발적 행동을 막기 위해서 미리 연설문을 검토하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단에 세우지 않는데, 어느 학생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단에 올라서서 연설문을 읽어내려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연설문을 박박 찢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낭랑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단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단위에 앉은 사람만 제외하고 졸업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른 것이다. 물론 학교 당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 학생의 믿음 표현이 얼마나 가상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리모|델링|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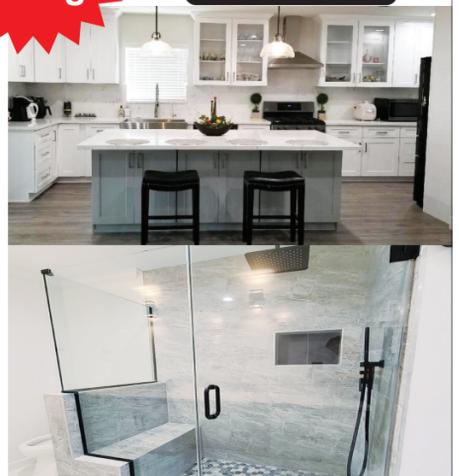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998-1222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성령께서 전도하시는 원리를 알아

# “구원의 은혜 없으면, 교회 다녀도 모두 전도대상자”



없고, 이런 일에 은사 있는 전문가를 불러 대신 맡겨볼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목회자들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종교적 행위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근거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 속에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저자는 “이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고백과 봉사 등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모두 전도대상자”라고 강조하고 있다(32-33쪽).

저자가 지적한 대로 이렇게 거듭난 일도 없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명목상 신자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거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34쪽).

그렇다면 어째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성령님과 함께 영혼을 구령하는 법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저자는 영혼 구령에 있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정말 딱 필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저자가 말한 대로,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전도 방식은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가 유효하게 그 영혼 위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에 의한 영적 각성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서둘러 인정해주는 것은 그 영혼을 속이는 일이다(36쪽).

심지어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할 때도 복음을 좋게만 포장해서 설교하면, 피상적이고 알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다.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령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성령께서는 먼저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낮아진 마음에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82쪽)”고 말한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복음의 기능과 역할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복음 앞에 율법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한 자각과 각성이 있을 때에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

목회자는 한 영혼을 붙잡고 그가 잃어버린 상태이며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에도 성령님의 방식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영혼의 회심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성경적인 전



©Unsplash

도를 할 수 있다. 성령의 사역을 배제하고 인간 의지의 결단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교회는 점점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차고 있다. 이러한 전도는 명목상의 신자와 거짓 신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95쪽).

이 책을 통해 성령께서 한 영혼을 구령하

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도구, 복음의 신적 도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됐다. 성령의 전도 사역에 진정한 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종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고문

### 구원 프로세스

김홍만  
생명의말씀사 | 96쪽

사람이 우선되는  
실용주의적 전도를 넘어,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뒤따르는 전도로

우리의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께서 전도 중에  
일하시는 과정을 조명한다

목회자의 주요 임무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혼 구령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말씀하셨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아버지와 자신의 일로 언급하셨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은 그야말로 지상에서 최고의 영예로운 사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급박하고도 중차대한 영혼 구령보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목회자의 주요 임무가 바뀌어버린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어떻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은 잘 알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본 일도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2:13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isown himself.

2 TIMOTHY 2:13



# 제16회 만장장학생 선발공고

MANNAM PRESBYTERIAN CHURCH IS OFFERING

## \$1000 SCHOLARSHIP

We want to help you reach your dreams...

**신청자격**  
남가주에 거주하는  
대학생/신학대학원생 및  
입학 예정자

**제출서류**  
신청서, 에세이, 성적표 및  
입학 허가서

**신청마감**  
5월 31일 2023

**Qualifications**  
Prospective or Current  
Undergraduate/Seminary Graduate  
Students Residing in Southern California

**Required Documents**  
Application, Essay, Transcript &  
Letter of Acceptance to a College

**Application Deadline**  
May 31, 2023

SUBMIT YOUR APPLICATION BY  
**5/31/2023**

Visit church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and application  
[www.churchmannam.com](http://www.churchmannam.com)  
Apply by email only ( [mannamchurch2020@gmail.com](mailto:mannamchurch2020@gmail.com) )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신앙적 여정 시각적으로 그려낸 토마스 콜

‘종교개혁적 인간 이해’ 함축해 그린 ‘미국의 천로역정’

4부작 <삶의 항해>, 신앙 여정 파노라마 식 그려내 <천로역정>과 비슷, 사실적 풍경과 알레고리 연결 온갖 난관과 시험 거쳐 나약한 자아 깨닫고 구원행 무엇 잘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19세기 중반 미국인들은 ‘움직이는 파노라마(Moving Panorama)’를 즐겨 감상했다. 두루마리 그림처럼 전문 화가들이 제작한 그림을 길게 펼쳐놓고,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해설가의 이야기와 음악가의 연주를 곁들이는 저테크(low-tech) 공연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그림과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일종의 공감각적인 작품이었던 셈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공연은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 파노라마’였다. 이 파노라마는 길이만도 255미터나 되어, 관람에 2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이 ‘무빙 파노라마’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이 상연된 첫 해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파노라마가 제작되기 전에 미국판 『천로역정』을 제작한 화가가 있었다. <삶의 항해>(The Voyage of Life)를 그린 토마스 콜(Thomas Cole, 1801-1848)이 그 장본인이다.

‘미국의 천로역정’으로 불리는 이 연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담았는데, 순례자는 절망의 늪, 죽음의 그림자계곡, 절망의 동굴 등을 통과하여 천상의 도시에 이르는 등 『천로역정』과 비슷한 스토리를 지닌다.

사실적인 풍경과 알레고리를 연결 짓는 것은 콜의 작품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며, 문학에서나 회화에서나 알레고리를 기용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예술적 전통이기도 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모두 4부작으로 구성돼 있는 <삶의 항해>를 살펴보자.

먼저 <유년기>(Childhood, 1839-1840)는 어린 아이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다. 아이가 동굴에서 나오는 것은 고전적 신화 모티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다(시 139:15)”는 성경의 메타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때 천사(‘하나님의 영’을 상징)가 뒤에서 노를 잡고 아이를 보살펴 준다. 주위 풍경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어린아이를 축복하듯이 꽃이 피어 있고 물결도 잔잔하다. 초원의 꽃과 식물도 어린 아이를 축복해준다. 기대와 희망만이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 같다.

<청년기>(Youth, 1840)는 유아가 젊은이로 자라 홀로 여행에 나선다. <유년기>의 만발한 꽃들은 <청년기>에 자리를 내어주고, 척박한 산맥으로 출발을 서두른다.

천사 역할도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천사는 뒷전으로 물러나 청년을 떠나보낸다. 낙엽수

림 한 가운데 있는 야자나무는 에덴동산의 ‘생명의 나무’를 연상시키는데, 초기 작품 <에덴동산에서 추방>(Expulsion from the Garden of Eden, 1828)에는 죄와 환상에 빠진 젊은이들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등장한다.

즉 콜은 초기작 <에덴동산에서 추방>에서 보인 플롯과 비슷하게,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을 떠나 기나긴 장정에 오른다.

그러나 콜의 <청년기>가 <에덴동산에서 추방>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덴동산에서 추방>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결과,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에 비해 <청년기>에서는 스스로 길을 나서는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이 <유년기>과 다른 점은 천사 대신 청년이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은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헤쳐갈 수 있으리라 자신했을 것이다.

그의 포즈를 보면 행선지를 분명하게 가리킨 것으로 보아, 청년은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그가 성령의 도움 없이 홀로 여행을 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천사의 이별 장면이 뜻하는 바는 청년의 단독 여행을 의미하며, 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실질적인 대화와 교제가 없는 여행을 암시한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청년은 어른이 되었다. <장년기>(Manhood, 1840)에서는 예상치 못한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진다. 거센 물줄기가 곤두박질치는 폭포 앞에서 주인공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다. 폭포가 내리치고 빠른 물살이 흰 이빨을 드러내며 주인공을 집어삼킬 기세이다.

콜이 말한 것처럼 주인공은 “보트의 키를 잃어버렸다.” 그를 환영해주던 파릇파릇한 들판의 꽃과 식물들은 이제 죽은 나무와 거친 암석, 먹구름이 낀 하늘로 바뀌었다. 주인공은 어쩔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휩싸여 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천사는 멀리 구름 속에 떨어져 이를 지켜볼 따름이다. 이 장면에 대해 콜은 “위를 향해 탄원하는 여행자의 모습은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그러한 신앙은 그를 피할 수 없는 파괴로부터 구한다”고 적었다.

마지막 작품인 <노년기>(Old Age, 1840)의 경우, 장면이 바뀌어 주인공은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 주인공은 노인이 되면서 몸도 쇠약해졌고 감각도 무뎠다. 콜이 기술



토마스 콜, 삶의 항해- 유년기, 캔버스에 유채, 134x195cm, 1842,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소장



토마스 콜, 삶의 항해- 청년기, 캔버스에 유채, 134x194cm, 1842,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소장



토마스 콜, 삶의 항해- 청년기, 캔버스에 유채, 134x202cm, 1840,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소장

한 대로 “강은 영원의 바다로 흘러간다.” 그의 곁에는 천사가 그를 안내한다. 노인은 더 이상 키를 잡을 필요가 없다. 주님 없이 스스로 여행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멀리 층층이 쌓인 먹구름이 갈라지면서 광명한 빛이 출현한다. 그 빛으로부터 축복의 전령이 날갯짓을 하며 그에게 다가온다.

일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위기감, 수많은 시험들, 낭패감과 좌절감 따위는 더 이상 눈독들이 사라져버린다. 조금 후에는 천사가 영광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빛의 도성’으로 주인공을 인도해줄 것이다.

일련의 작품에서 토마스 콜은 삶의 여행을 영적으로 표현했다. 감상에 치우친 빅토리아 식 취향을 간간히 엿볼 수 있지만, 이 작품들에서 우리는 온갖 난관과 시험을 거치면서 자아의 나약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의 방주’에 몸을 싣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항해>에서 여행자는 자기 힘으로 생명을 구할 수 없다. 그는 조류(潮流)에 수동적으로 의탁할 뿐인데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길이 없어 보인다.

진 에드워드 비스(Gene Edward Veith)가 정확히 짚어낸 것처럼, 이 작품에는 인간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손길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의 인간 이해’가 함축돼 있다.



토마스 콜, 삶의 항해- 노년기, 캔버스에 유채, 163x231cm, 1840, Munson Williams Proctor 아트 인스티튜트 소장

그림의 주인공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띄워 보낸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울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요 6:44).”

이 땅을 항해 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며 기뻐하며 존재한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상담심리학과 디렉터 모집 공고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상담심리학 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디렉터로 재직하실 교수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 기독교 분야 석사 학위(M.Div., M.A. in Theology, M.A. in Christian Counseling etc.) 취득자
상담심리학 분야 박사(Ph.D. in Counseling Psychology, Doctor of Psychology) 학위 취득자나 그에 준한 자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인된 기독교상담심리학회나 목회상담협회의 1급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나 감독 자격 취득한 자 우대

제출서류:

- 국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경력 중심으로 작성):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되 근무한 모든 기관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필히 기록 바람.
영문 강의계획서(Syllabus) 샘플 1부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증 및 성적증명서 영문 원본 각 1부: 졸업대학 사무실에서 직접 이메일(stevehong@pts.a.edu)로 보내주거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로 우편 발송
목회자 추천서 2부
교수 추천서 2부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금)까지
지원서류 수신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 최효운영책임자 홍성학 교수 | stevehong@pts.a.edu
모든 서류는 e-mail(PDF)로만 받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스포켄 반석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

워싱턴주 스포켄에 위치한 반석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 남침례교단 회원이거나 가입가능한 자, 미국 내 합법 체류자 \*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받을 인품과 성실함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목사님/사모님) 2. 자기소개서(가족소개 및 가족사진) 3. 설교동영상 또는 음성파일

지원방법: 이메일로만 접수받습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 Jayyon4@gmail.com

반석침례교회



#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SCAN ME

**100%  
Made in  
USA**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소개 해주신 분께 시공 완료 후 500 불을 드립니다**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2~3달 안에 설치** 가능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